

2021 충남도정에 바란다: 청년 일자리편

김양중 · 김영수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원
kyl0509@cni.re.kr
kys312@cni.re.kr

CONTENTS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충남 고용동향
- 3. 도내 청년 의견조사 결과
- 4.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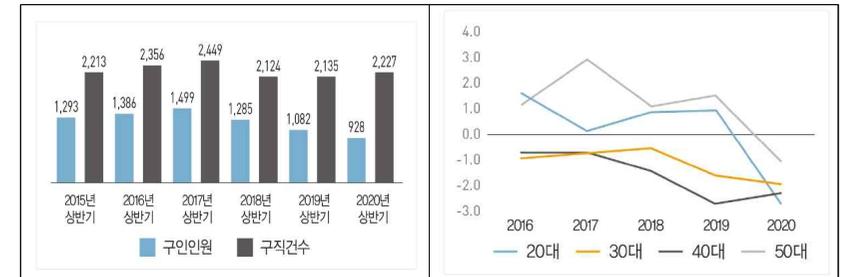
요약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청년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
- 청년 설문결과 충남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청년들의 높은 수도권 선호, 불안정 고용,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지역내 청년 선호일자리 확대와 도 산하기관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청년통장,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 자산증대 시책을 통해 지역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지역에 취업하여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함
-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었음
 -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관건인데, 충남은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함
- 충남 청년들의 83.6%가 상생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주도 상생형 일자리를 선호
-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받고 싶은 혜택으로 고용안정이 26.4%로 나타났고 지역인재 채용이 25.5%, 주거지원(15.2%), 자산형성 지원(15.2%) 순으로 나타남
- 충남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기업은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 충남도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을 위한 시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상생펀드 조성, 참여주체간 조율 및 협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0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구인규모는 줄고 실업은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음
- 워크넷 기준 구인규모는 2017년 상반기 이후 감소하여 2020년 상반기 1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구직건수는 2020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
- 또한 20대 취업자 수 증감률은 살펴보면 작년 동기대비 2020년 상반기에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고용조사 브리프, 청년층은 희망직업으로 취업하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그림 1] 구인구직 현황 및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감률

-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본인의 희망직업이나 희망 고용형태 등은 고려하지 못하고 오직 취업만을 목표로 구직활동을 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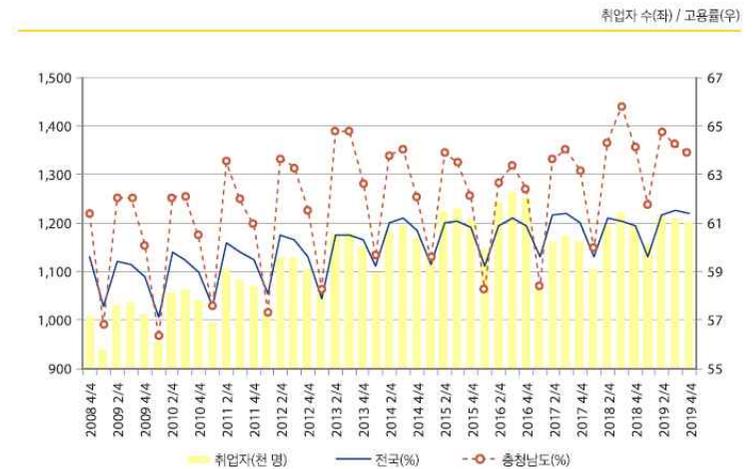
- 최근 민간구직사이트에서 취업준비생 1,81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취업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1.0%의 응답자는 '기업이나 정규직에 상관없이 빠른 취업'을 원한다고 응답함
- 그러나 희망직업과 전혀 다른 직종으로 취업할 때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근무기간도 짧아질 것으로 예상됨

2. 연구목적

- 향후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도 코로나19의 장기화, 경기불황 등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져 고용시장 전망도 밝지 않음
-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 청년부채의 증가 등 사회적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청년들의 빠른 취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로 충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피해가 커 해당부문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고, 서비스업 분야도 피해가 발생
- 이처럼 대내외 환경변화를 살펴볼 때, 충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며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충남 청년 일자리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02 충남 고용동향

- 2019년 충남의 고용구조는 다음과 같음
 - 충남의 2019년 취업자 수는 1,196천 명으로 전년대비 17천 명 증가했고 생산가능인구는 1,878천 명으로 23천 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1,231천 명으로 15천 명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35천 명으로 3천 명 감소함
 - 취업자가 대폭 늘어 2019년 고용률은 63.7%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고 실업자가 감소하여 2019년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함



출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20년 봄호, 17개 시도별 고용동향 재인용

[그림 2] 충남의 취업자 수 및 고용률 현황

● 2019년 특성별 취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남녀 모두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의 취업자 수도 증가함
-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반면, 사무종사자, 단순노동종사자는 전년대비 각각 2.4%, 2.6% 감소함
-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7.8% 감소함
- 전년대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증가했고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증가함

〈표 1〉 2019년 특성별 취업자 수 현황

| | 구분 | 취업자 수 | 증감률 | 구분 | 취업자 수 | 증감률 |
|------|---------------------|-------|------|------------------|-------|------|
| 별 성 | 남자 | 706 | 1.4 | 농업·임업 및 어업 | 143 | 2.1 |
| | 여자 | 490 | 1.4 | 제조업 | 270 | 0.0 |
| 별 연령 | 15-29세 | 173 | 3.0 | 건설업 | 83 | -7.8 |
| | 30-39세 | 228 | -3.8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 211 | 6.6 |
| | 40-49세 | 275 | 0.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384 | 3.2 |
| | 50-59세 | 268 | 3.1 | 전기·운수·통신·금융 | 104 | -4.6 |
| | 60세 이상 | 252 | 4.6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64 | 4.9 |
| 별 직업 | 관리자·전문가 | 200 | 3.1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234 | 0.4 |
| | 사무종사자 | 161 | -2.4 | 무급가족종사자 | 84 | 13.5 |
| | 서비스·판매 종사자 | 256 | 9.9 | 상용근로자 | 600 | 1.5 |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128 | 3.2 | 임시근로자 | 146 | -4.6 |
|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동 종사자 | 452 | -2.6 | 일용근로자 | 69 | 3.0 |

출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20년 봄호, 17개 시도별 고용동향 재인용

03 도내 청년 의견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충남도 내 20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2021년 2월 1일부터 3주간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시행
 -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현황, 충남의 일자리 문제, 청년 자기계발, 충남 상생형 일자리의 필요성, 일자리 정책 평가 및 제안 사항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

〈표 2〉 설문조사 개요

| | |
|---------------|---|
| 조사목적 | 충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점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수립에 제언하고자 조사를 실시함 |
| 조사지역 | 충청남도 전체 15개 시/군 |
| 표본크기 | 330개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5.39%p) |
| 표본추출방법 및 프로세스 | 다단계 군집추출법으로 조사지역 내 연령, 학력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확률적으로 선정함 |
| 자료수집방법 |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
| 조사대상자 | 조사지역 내 20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 조사기간 | 2021. 02. 1. ~ 2021. 02. 19. (3주간) |

● 설문 응답자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성별은 남녀가 동일하게 50.0%의 비중을 보였고 연령은 20대 초반이 27.9%, 20대 중반이 49.7%, 20대 후반이 22.4%로 나타남
- 학력은 대학 재학, 대학 졸업 예정, 대학 졸업 모두 33.3%로 나타났고 전공은 인문 어학계열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계열, 공학계열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는 천안시가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산시 9.4%,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은 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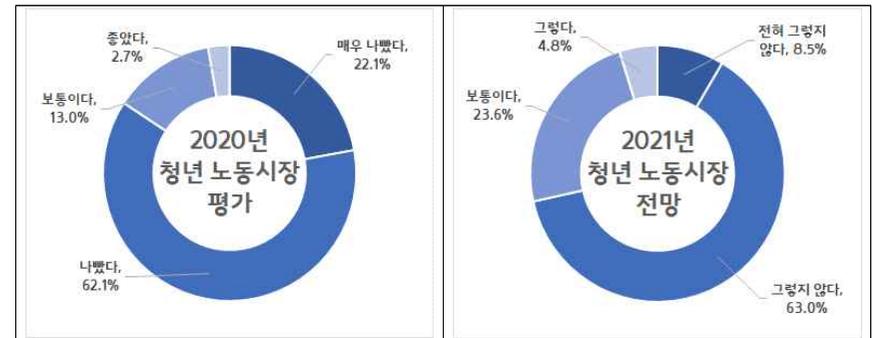
〈표 3〉 응답자 개요

| 구 분 | | 비중 | 구 분 | | 비중 |
|-----|----------|-------|-----|------|-------|
| 성별 | 남 | 50.0% | 거주지 | 계룡시 | 5.5% |
| | 여 | 50.0% | | 공주시 | 7.3% |
| 연령 | 20대 초반 | 27.9% | | 금산군 | 4.8% |
| | 20대 중반 | 49.7% | | 논산시 | 7.3% |
| | 20대 후반 | 22.4% | | 당진시 | 7.3% |
| 학력 | 대학 재학 | 33.3% | | 보령시 | 7.3% |
| | 대학 졸업 예정 | 33.3% | | 부여군 | 5.5% |
| | 대학 졸업 | 33.3% | | 서산시 | 7.3% |
| 전공 | 인문 어학계열 | 20.6% | | 서천군 | 4.8% |
| | 사회계열 | 16.4% | | 아산시 | 9.4% |
| | 법정계열 | 4.8% | | 예산군 | 5.5% |
| | 경상계열 | 10.3% | | 천안시 | 11.2% |
| | 교육계열 | 10.3% | | 청양군 | 4.8% |
| | 공학계열 | 13.3% | | 태안군 | 4.8% |
| | 자연계열 | 12.7% | 홍성군 | 7.3% | |
| | 예체능계열 | 7.9% | | | |
| | 의약계열 | 3.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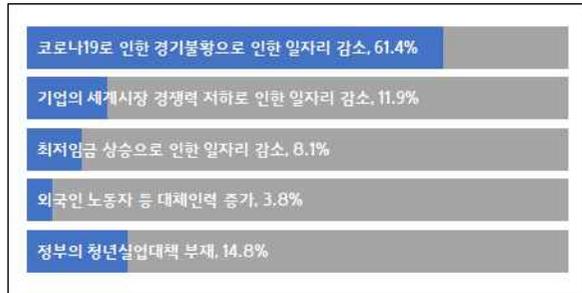
2. 분석결과

(1) 노동시장 현황

- 청년들의 2020년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며, 2021년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청년 노동시장이 나빴다는 응답은 84.2%로 나타났고 2021년 청년 노동시장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1.5%로 나타남
- 청년 노동시장이 악화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0년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매우 나빴다는 20대 후반의 응답률은 33.8%로 전체 응답률인 22.1%에 비해 11.7%p 더 높게 나타남
- 2020년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매우 나빴다는 응답은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응답률이 전체 응답률 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빴다는 응답은 사회계열과 경상계열의 응답률이 전체 응답률 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해당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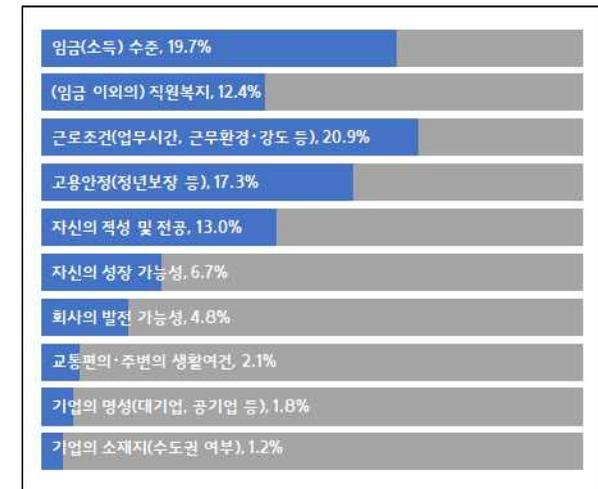
[그림 3] 청년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생각



[그림 4] 청년 노동시장이 악화된 이유

<표 4> 응답자 특성별 2020년 청년 노동시장 평가

| 구 분 | 매우 나빴다 | 나빴다 | 보통이다 | 좋았다 | 합계 | 특성 비중 | |
|------|---------|--------------|--------------|-------|--------|--------|-------|
| 연령 | 20대 초반 | 13.0% | 62.0% | 18.5% | 6.5% | 100.0% | 27.9% |
| | 20대 중반 | 22.0% | 64.0% | 12.2% | 1.8% | 100.0% | 49.7% |
| | 20대 후반 | 33.8% | 58.1% | 8.1% | 0.0% | 100.0% | 22.4% |
| 전공 | 인문 어학계열 | 22.1% | 55.9% | 19.1% | 2.9% | 100.0% | 20.6% |
| | 사회계열 | 18.5% | 72.2% | 7.4% | 1.9% | 100.0% | 16.4% |
| | 법정계열 | 25.0% | 62.5% | 0.0% | 12.5% | 100.0% | 4.8% |
| | 경상계열 | 11.8% | 70.6% | 14.7% | 2.9% | 100.0% | 10.3% |
| | 교육계열 | 17.7% | 64.7% | 17.7% | 0.0% | 100.0% | 10.3% |
| | 공학계열 | 27.3% | 54.6% | 15.9% | 2.3% | 100.0% | 13.3% |
| | 자연계열 | 31.0% | 54.8% | 11.9% | 2.4% | 100.0% | 12.7% |
| | 예체능계열 | 30.8% | 57.7% | 7.7% | 3.9% | 100.0% | 7.9% |
| 의약계열 | 8.3% | 83.3% | 8.3% | 0.0% | 100.0% | 3.6% | |
| 전 체 | 22.1% | 62.1% | 13.0% | 2.7% | 100.0% | 100.0% | |



[그림 5] 취업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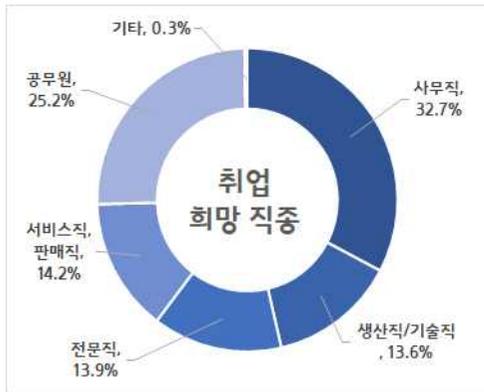
<표 5> 전공 별 취업 시 고려사항

| 구 분 | 인문 어학 | 사회 | 법정 | 경상 | 교육 | 공학 | 자연 | 예체능 | 의약 | 전 체 |
|-------------|--------------|--------------|--------------|--------------|--------------|--------------|--------------|--------------|--------|--------|
| 임금수준 | 19.1% | 18.5% | 18.8% | 17.6% | 5.9% | 38.6% | 14.3% | 26.9% | 8.3% | 19.7% |
| 직원복지 | 17.6% | 3.7% | 18.8% | 8.8% | 14.7% | 11.4% | 11.9% | 11.5% | 25.0% | 12.4% |
| 근로조건 | 11.8% | 37.0% | 37.5% | 17.6% | 17.6% | 20.5% | 23.8% | 7.7% | 16.7% | 20.9% |
| 고용안정 | 29.4% | 20.4% | 6.3% | 20.6% | 26.5% | 9.1% | 4.8% | 7.7% | 8.3% | 17.3% |
| 자신의 적성 및 전공 | 2.9% | 14.8% | 6.3% | 8.8% | 17.6% | 4.5% | 23.8% | 30.8% | 25.0% | 13.0% |
| 자신의 성장가능성 | 7.4% | 1.9% | 6.3% | 5.9% | 11.8% | 4.5% | 14.3% | 3.8% | 0.0% | 6.7% |
| 회사의 발전가능성 | 8.8% | 1.9% | 0.0% | 5.9% | 0.0% | 2.3% | 4.8% | 7.7% | 16.7% | 4.8% |
| 교통편의 생활여건 | 1.5% | 0.0% | 6.3% | 8.8% | 2.9% | 0.0% | 2.4% | 0.0% | 0.0% | 2.1% |
| 기업의 명성 | 1.5% | 0.0% | 0.0% | 2.9% | 0.0% | 9.1% | 0.0% | 0.0% | 0.0% | 1.8% |
| 기업의 소재지 | 0.0% | 1.9% | 0.0% | 2.9% | 2.9% | 0.0% | 0.0% | 3.8% | 0.0% | 1.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특성 비중 | 20.6% | 16.4% | 4.8% | 10.3% | 10.3% | 13.3% | 12.7% | 7.9% | 3.6% | 100.0% |

- 청년들은 취업 시 근로조건, 임금 수준, 고용안정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의 자신의 적성 및 전공, 직원복지도 중요시 하지만, 기업의 소재지, 명성, 교통편의 및 주변 생활여건은 중요시 하지 않으므로 규모에 상관없이 탄탄한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전략도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전공 별로 취업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공학계열은 임금수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 법정, 자연계열은 근로조건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어학, 경상, 교육계열은 고용안정의 응답률이 높고 자연, 예체능계열은 자신의 적성 및 전공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청년들은 사무직과 공무원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직을 희망한다는 응답률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은 25.2%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남자의 경우 생산직 및 기술직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 응답률인 13.6% 보다 8.2%p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서비스 및 판매직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 응답률인 14.2% 보다 5.2%p 높게 나타났으므로 남자는 육체노동, 여자는 감정노동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시사됨
-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사무직을 제외하면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고른 반면, 대학 졸업 예정자는 재학생보다 사무직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대학 졸업자는 사무직 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문·어학계열은 사무직과 공무원에 대한 선호로 양분되어 있고 법정, 경상계열은 사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공학, 자연계열은 생산직 및 기술직, 예체능계열은 서비스직 및 판매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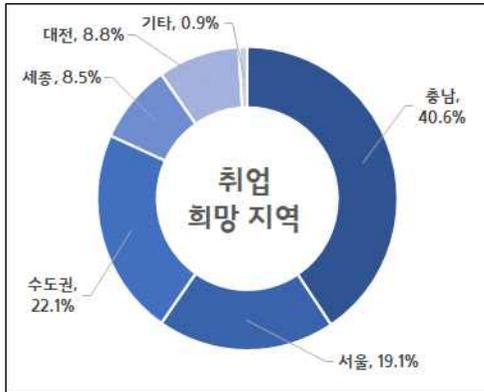
[그림 6] 취업 희망 직종

<표 6> 특성별 취업 희망 직종

| 구분 | 사무직 | 생산직/기술직 | 전문직 | 서비스직/판매직 | 공무원 | 기타 | 합계 | 특성 비중 | |
|----|----------|--------------|--------------|----------|--------------|--------------|--------|--------|-------|
| 성별 | 남 | 29.7% | 21.8% | 10.9% | 9.1% | 27.9% | 0.6% | 100.0% | 50.0% |
| | 여 | 35.8% | 5.5% | 17.0% | 19.4% | 22.4% | 0.0% | 100.0% | 50.0% |
| 학력 | 대학 재학 | 34.5% | 14.5% | 18.2% | 15.5% | 17.3% | 0.0% | 100.0% | 33.3% |
| | 대학 졸업 예정 | 39.1% | 12.7% | 10.9% | 15.5% | 21.8% | 0.0% | 100.0% | 33.3% |
| | 대학 졸업 | 24.5% | 13.6% | 12.7% | 11.8% | 36.4% | 0.9% | 100.0% | 33.3% |
| 전공 | 인문 어학계열 | 48.5% | 0.0% | 1.5% | 8.8% | 41.2% | 0.0% | 100.0% | 20.6% |
| | 사회계열 | 33.3% | 0.0% | 3.7% | 29.6% | 33.3% | 0.0% | 100.0% | 16.4% |
| | 법정계열 | 50.0% | 0.0% | 18.8% | 0.0% | 25.0% | 6.3% | 100.0% | 4.8% |
| | 경상계열 | 58.8% | 0.0% | 2.9% | 5.9% | 32.4% | 0.0% | 100.0% | 10.3% |
| | 교육계열 | 32.4% | 0.0% | 26.5% | 8.8% | 32.4% | 0.0% | 100.0% | 10.3% |
| | 공학계열 | 20.5% | 63.6% | 11.4% | 0.0% | 4.5% | 0.0% | 100.0% | 13.3% |
| | 자연계열 | 14.3% | 40.5% | 23.8% | 9.5% | 11.9% | 0.0% | 100.0% | 12.7% |
| | 예체능계열 | 11.5% | 0.0% | 19.2% | 58.8% | 15.4% | 0.0% | 100.0% | 7.9% |
| | 의약계열 | 0.0% | 0.0% | 83.3% | 16.7% | 0.0% | 0.0% | 100.0% | 3.6% |
| 전체 | 32.7% | 13.6% | 13.9% | 14.2% | 25.2% | 0.3% | 100.0% | 100.0% | |

(2) 충남의 일자리 문제

- 청년들은 충남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지역으로 충남의 선호도는 40.6%이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도는 41.2% (서울 19.1%, 수도권 22.1%)로 충남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므로, 충남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확대의 필요성이 간접적으로 시사됨
 - 인문 어학계열은 취업 지역으로 충남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예체능계열은 취업 지역으로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공학계열은 수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충남도내에 인문 어학계열 전공자의 선호도가 높은 사무직과 공무원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고 예체능 전공자를 위한 서비스직 및 판매직, 공학계열 전공자를 위한 생산직 및 기술직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취업을 희망하는 시군으로 천안은 38.1%, 아산은 17.9%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천안과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그림 7] 취업 희망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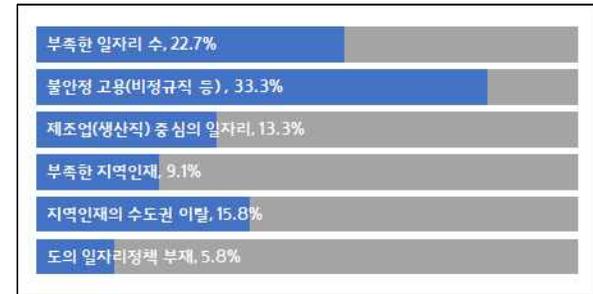
<표 7> 특성별 취업 희망 지역

| 구 분 | 충남 | 서울 | 수도권 | 세종 | 대전 | 기타 | 합계 | 특성 비중 |
|---------|--------------|--------------|--------------|-------|-------|------|--------|--------|
| 인문 어학계열 | 57.4% | 14.7% | 11.8% | 10.3% | 4.4% | 1.5% | 100.0% | 20.6% |
| 사회계열 | 46.3% | 18.5% | 18.5% | 9.3% | 7.4% | 0.0% | 100.0% | 16.4% |
| 법정계열 | 18.8% | 31.3% | 31.3% | 18.8% | 0.0% | 0.0% | 100.0% | 4.8% |
| 경상계열 | 47.1% | 23.5% | 20.6% | 5.9% | 2.9% | 0.0% | 100.0% | 10.3% |
| 교육계열 | 44.1% | 11.8% | 20.6% | 5.9% | 14.7% | 2.9% | 100.0% | 10.3% |
| 공학계열 | 31.8% | 18.2% | 36.4% | 2.3% | 11.4% | 0.0% | 100.0% | 13.3% |
| 자연계열 | 38.1% | 14.3% | 26.2% | 9.5% | 11.9% | 0.0% | 100.0% | 12.7% |
| 예체능계열 | 11.5% | 34.6% | 26.9% | 15.4% | 7.7% | 3.8% | 100.0% | 7.9% |
| 의약계열 | 25.0% | 25.0% | 16.7% | 0.0% | 33.3% | 0.0% | 100.0% | 3.6% |
| 전 체 | 40.6% | 19.1% | 22.1% | 8.5% | 8.8% | 0.9% | 100.0% | 100.0% |



[그림 8] 충남도내 취업 희망 시군

- 충남의 청년 노동시장 문제점은 불안정고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됨
 - 이 외에 부족한 일자리 수(22.7%), 지역인재의 수도권 이탈(15.8%), 제조업(생산직) 중심의 일자리(13.3%)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인재의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함
 - 충남의 청년 노동시장 문제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초반은 일자리수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후반은 불안정 고용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안정적 고용 확대 정책을 우선 추진한 뒤 일자리수를 확대하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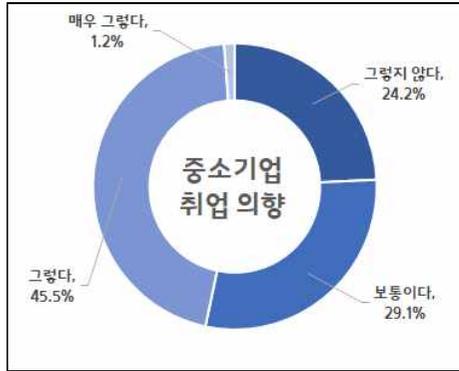


[그림 9] 충남의 청년 노동시장 문제점

<표 8> 연령별 충남의 청년 노동시장 문제점

| 구 분 | 부족한 일자리 수 | 불안정 고용 |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 부족한 지역인재 | 지역인재의 수도권 이탈 | 도의 일자리 정책 부재 | 합계 | 특성 비중 |
|--------|--------------|--------------|-------------|----------|--------------|--------------|--------|--------|
| 20대 초반 | 38.0% | 20.7% | 12.0% | 13.0% | 13.0% | 3.3% | 100.0% | 27.9% |
| 20대 중반 | 16.5% | 35.4% | 14.0% | 7.9% | 19.5% | 6.7% | 100.0% | 49.7% |
| 20대 후반 | 17.6% | 44.6% | 13.5% | 6.8% | 10.8% | 6.8% | 100.0% | 22.4% |
| 전 체 | 22.7% | 33.3% | 13.3% | 9.1% | 15.8% | 5.8% | 100.0% | 100.0% |

-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24.2%로 중소기업 취업에 부정적인 의견도 다소 있음
 - 20대 초반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는 응답률이 55.4%로 높은 반면에, 20대 후반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계열과 자연계열 전공자는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은 반면, 교육계열 전공자는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중소기업 취업 의향

<표 9> 특성별 중소기업 취업 의향

| 구분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특성 비중 |
|----|---------|--------------|-------|--------------|--------|--------|--------|
| 연령 | 20대 초반 | 17.4% | 27.2% | 53.3% | 2.2% | 100.0% | 27.9% |
| | 20대 중반 | 23.2% | 28.0% | 47.6% | 1.2% | 100.0% | 49.7% |
| | 20대 후반 | 35.1% | 33.8% | 31.1% | 0.0% | 100.0% | 22.4% |
| 전공 | 인문 어학계열 | 20.6% | 25.0% | 52.9% | 1.5% | 100.0% | 20.6% |
| | 사회계열 | 20.4% | 22.2% | 57.4% | 0.0% | 100.0% | 16.4% |
| | 법정계열 | 31.3% | 31.3% | 37.5% | 0.0% | 100.0% | 4.8% |
| | 경상계열 | 23.5% | 32.4% | 44.1% | 0.0% | 100.0% | 10.3% |
| | 교육계열 | 55.9% | 26.5% | 17.6% | 0.0% | 100.0% | 10.3% |
| | 공학계열 | 13.6% | 34.1% | 45.5% | 6.8% | 100.0% | 13.3% |
| | 자연계열 | 19.0% | 19.0% | 61.9% | 0.0% | 100.0% | 12.7% |
| | 예체능계열 | 19.2% | 53.8% | 26.9% | 0.0% | 100.0% | 7.9% |
| | 의약계열 | 33.3% | 41.7% | 25.0% | 0.0% | 100.0% | 3.6% |
| | 전체 | 24.2% | 29.1% | 45.5% | 1.2% | 100.0% | 100.0% |

- 청년들은 초임연봉으로 3천만 원 초중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연봉은 희망 연봉보다 5백만 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희망 초임연봉으로 3천만 원 중반은 47.0%의 응답률을 보였고 3천만 원 초반은 34.2%의 응답률을 보임
 - 중소기업 연봉과 초임연봉간의 격차는 5백만 원이 38.5%의 응답률을 보였고 5백만 원 미만은 29.7%의 응답률이 나타남
 - 전공별 희망 초임연봉은 인문 어학계열과 교육계열은 3천만 원 초반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고 예체능계열은 3천만 원 중반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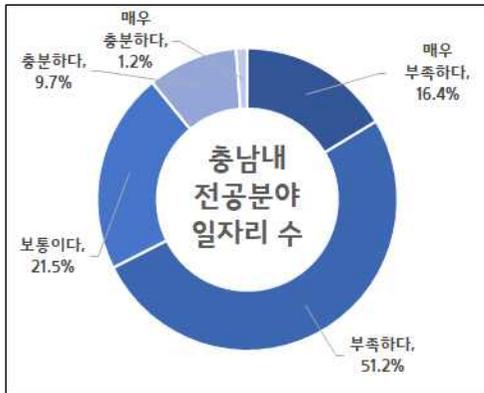


[그림 11] 희망 초임연봉 및 중소기업 연봉과 희망 초임연봉간의 격차

<표 10> 전공별 희망 초임연봉

| 구분 | 3천만 원 미만 | 3천만 원 초반 | 3천만 원 중반 | 3천만 원 후반 | 4천만 원 이상 | 합계 | 특성 비중 |
|---------|----------|--------------|--------------|----------|----------|--------|--------|
| 인문 어학계열 | 2.9% | 44.1% | 45.6% | 5.9% | 1.5% | 100.0% | 20.6% |
| 사회계열 | 7.4% | 33.3% | 48.1% | 11.1% | 0.0% | 100.0% | 16.4% |
| 법정계열 | 0.0% | 25.0% | 56.3% | 0.0% | 18.8% | 100.0% | 4.8% |
| 경상계열 | 5.9% | 32.4% | 47.1% | 11.8% | 2.9% | 100.0% | 10.3% |
| 교육계열 | 0.0% | 44.1% | 44.1% | 11.8% | 0.0% | 100.0% | 10.3% |
| 공학계열 | 0.0% | 22.7% | 45.5% | 22.7% | 9.1% | 100.0% | 13.3% |
| 자연계열 | 0.0% | 40.5% | 40.5% | 9.5% | 9.5% | 100.0% | 12.7% |
| 예체능계열 | 0.0% | 30.8% | 57.7% | 11.5% | 0.0% | 100.0% | 7.9% |
| 의약계열 | 0.0% | 0.0% | 50.0% | 8.3% | 41.7% | 100.0% | 3.6% |
| 전체 | 2.4% | 34.2% | 47.0% | 10.9% | 5.5% | 100.0% | 100.0% |

- 청년들은 충남내 전공분야 일자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충남내 전공분야 일자리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67.6%(매우 부족하다 16.4%, 부족하다 51.2%)로 나타나 전공과 무관한 취업준비가 많을 것으로 보임
 - 특히, 20대 후반, 인문 어학 및 예체능계열 전공자는 전공분야 일자리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전체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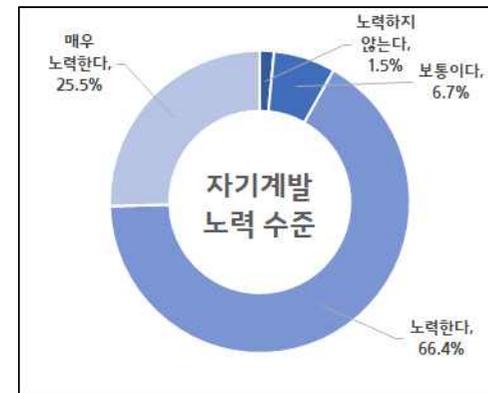
[그림 12] 충남내 전공분야 일자리 수 충분 정도

[표 11] 특성별 충남내 전공분야 일자리 수 충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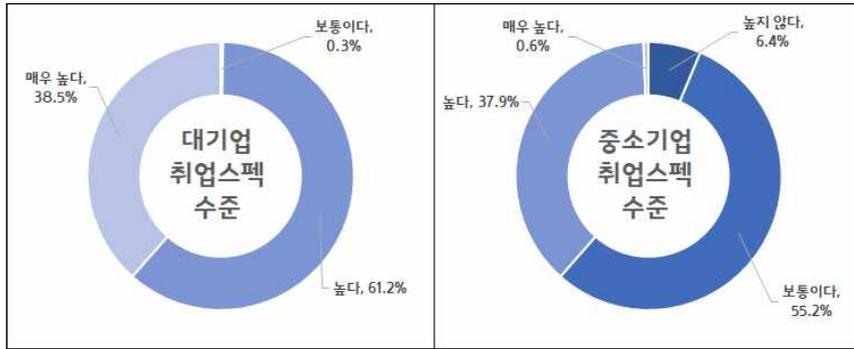
| 구 분 | 매우 부족하다 | 부족하다 | 보통이다 | 충분하다 | 매우 충분하다 | 합계 | 특성 비중 | |
|------|---------|--------------|-------|-------|---------|--------|--------|-------|
| 연령 | 20대 초반 | 17.4% | 46.7% | 23.9% | 9.8% | 2.2% | 100.0% | 27.9% |
| | 20대 중반 | 11.6% | 56.1% | 22.6% | 9.1% | 0.6% | 100.0% | 49.7% |
| | 20대 후반 | 25.7% | 45.9% | 16.2% | 10.8% | 1.4% | 100.0% | 22.4% |
| 전공 | 인문 어학계열 | 26.5% | 54.4% | 11.8% | 4.4% | 2.9% | 100.0% | 20.6% |
| | 사회계열 | 9.3% | 59.3% | 20.4% | 9.3% | 1.9% | 100.0% | 16.4% |
| | 법정계열 | 6.3% | 50.0% | 31.3% | 12.5% | 0.0% | 100.0% | 4.8% |
| | 경상계열 | 11.8% | 50.0% | 20.6% | 17.6% | 0.0% | 100.0% | 10.3% |
| | 교육계열 | 11.8% | 52.9% | 26.5% | 5.9% | 2.9% | 100.0% | 10.3% |
| | 공학계열 | 13.6% | 34.1% | 40.9% | 11.4% | 0.0% | 100.0% | 13.3% |
| | 자연계열 | 16.7% | 54.8% | 14.3% | 14.3% | 0.0% | 100.0% | 12.7% |
| | 예체능계열 | 34.6% | 53.8% | 3.8% | 7.7% | 0.0% | 100.0% | 7.9% |
| 의약계열 | 0.0% | 41.7% | 50.0% | 8.3% | 0.0% | 100.0% | 3.6% | |
| 전 체 | 16.4% | 51.2% | 21.5% | 9.7% | 1.2% | 100.0% | 100.0% | |

(3) 청년 자기계발

- 청년 대부분은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에 노력 중이지만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 스펙을 충족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률은 91.8%(매우 노력한다 25.5%, 노력한다 66.4%)로 나타났지만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스펙이 높다는 응답률은 99.7%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대기업 취업을 어렵게 느끼고 있음
 - 반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스펙은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55.2%로 중소기업 취업이 대기업보다 수월하다고 느끼고 있음
 - 20대 후반과 대학 졸업자는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에 매우 노력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36.5%, 34.5%로 전체 응답률인 25.5% 보다 각각 11.0%p, 9.1%p 높게 나타나 취업에 대한 절박함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됨.
 - 또한, 교육과 예체능계열 전공자도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에 매우 노력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44.1%, 38.5%로 타 전공자보다 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3] 자기계발 노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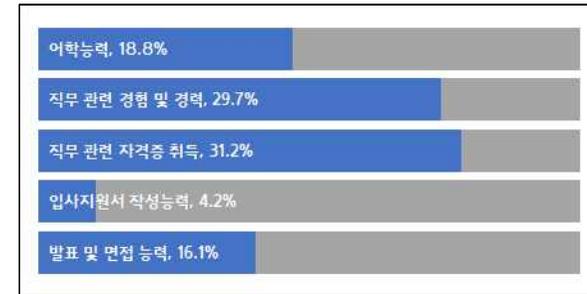
[그림 14] 대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스펙 수준

<표 12> 특성별 자기개발 노력 수준

| 구 분 | 노력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노력한다 | 매우 노력한다 | 합계 | 특성 비중 | |
|-----|----------|------|-------|--------------|--------------|--------|-------|
| 연령 | 20대 초반 | 1.1% | 12.0% | 64.1% | 22.8% | 100.0% | 27.9% |
| | 20대 중반 | 1.8% | 6.1% | 70.1% | 22.0% | 100.0% | 49.7% |
| | 20대 후반 | 1.4% | 1.4% | 60.8% | 36.5% | 100.0% | 22.4% |
| 학력 | 대학 재학 | 0.9% | 11.8% | 66.4% | 20.9% | 100.0% | 33.3% |
| | 대학 졸업 예정 | 1.8% | 4.5% | 72.7% | 20.9% | 100.0% | 33.3% |
| | 대학 졸업 | 1.8% | 3.6% | 60.0% | 34.5% | 100.0% | 33.3% |
| 전공 | 인문 어학계열 | 1.5% | 2.9% | 63.2% | 32.4% | 100.0% | 20.6% |
| | 사회계열 | 3.7% | 7.4% | 72.2% | 16.7% | 100.0% | 16.4% |
| | 법정계열 | 0.0% | 6.3% | 56.3% | 37.5% | 100.0% | 4.8% |
| | 경상계열 | 0.0% | 17.6% | 76.5% | 5.9% | 100.0% | 10.3% |
| | 교육계열 | 0.0% | 5.9% | 50.0% | 44.1% | 100.0% | 10.3% |
| | 공학계열 | 2.3% | 4.5% | 75.0% | 18.2% | 100.0% | 13.3% |
| | 자연계열 | 2.4% | 7.1% | 76.2% | 14.3% | 100.0% | 12.7% |
| | 예체능계열 | 0.0% | 7.7% | 53.8% | 38.5% | 100.0% | 7.9% |
| | 의약계열 | 0.0% | 0.0% | 50.0% | 50.0% | 100.0% | 3.6% |
| 전 체 | 1.5% | 6.7% | 66.4% | 25.5% | 100.0% | 100.0% | |

● 취업스펙 중 가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스펙은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과 관련 경험 및 경력 확보로 나타남

- 가장 성과내기 어려운 스펙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은 응답률이 31.2%로 나타났고 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은 29.7%로 나타났으므로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인턴십 등 직무 관련 경력 및 경험을 쌓을 수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특히, 20대 초반은 어학능력 향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20대 후반은 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을 쌓기 어려워하며, 대학 졸업 예정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상자 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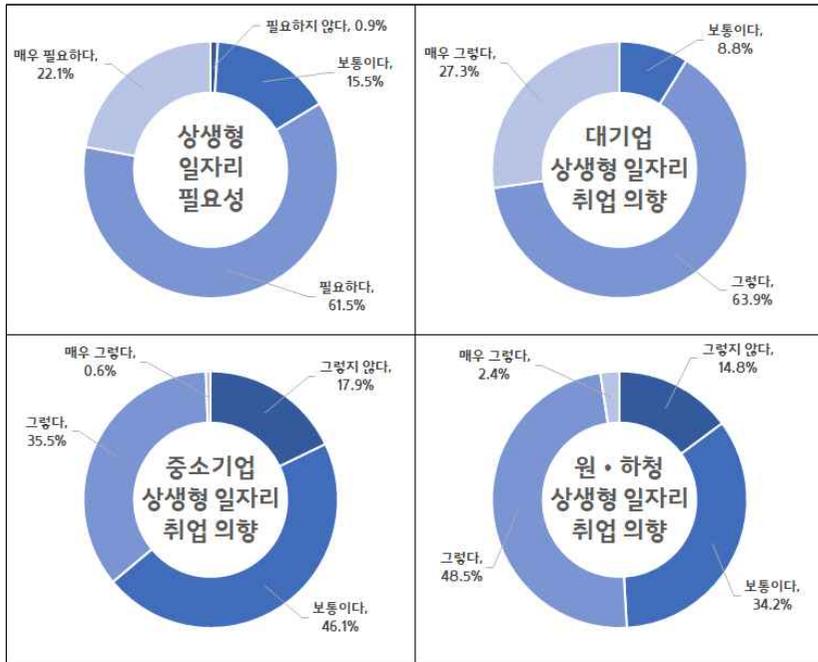
[그림 15] 취업스펙 중 가장 성과내기 어려운 스펙

<표 13> 특성별 취업스펙 중 가장 성과내기 어려운 스펙

| 구 분 | 어학능력 | 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 |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 입사 지원서 작성능력 | 발표 및 면접 능력 | 합계 | 특성 비중 | |
|-----|----------|---------------|--------------|--------------|------------|--------|--------|-------|
| 연령 | 20대 초반 | 25.0% | 22.8% | 32.6% | 4.3% | 15.2% | 100.0% | 27.9% |
| | 20대 중반 | 16.5% | 28.7% | 34.8% | 4.9% | 15.2% | 100.0% | 49.7% |
| | 20대 후반 | 16.2% | 40.5% | 21.6% | 2.7% | 18.9% | 100.0% | 22.4% |
| 학력 | 대학 재학 | 23.6% | 27.3% | 29.1% | 4.5% | 15.5% | 100.0% | 33.3% |
| | 대학 졸업 예정 | 11.8% | 32.7% | 38.2% | 2.7% | 14.5% | 100.0% | 33.3% |
| | 대학 졸업 | 20.9% | 29.1% | 26.4% | 5.5% | 18.2% | 100.0% | 33.3% |
| 전 체 | 18.8% | 29.7% | 31.2% | 4.2% | 16.1% | 100.0% |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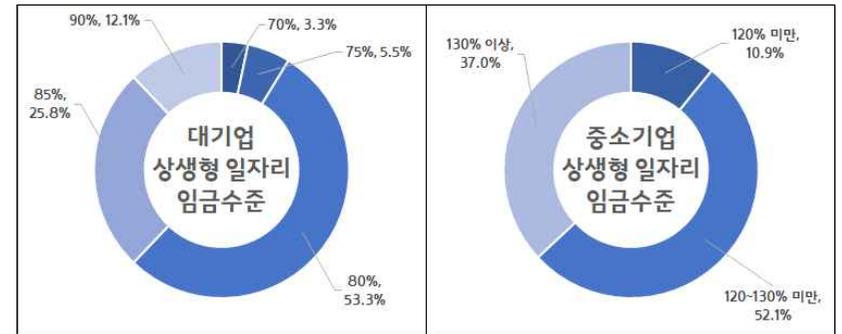
(4) 충남 상생형 일자리의 필요성

- 많은 청년들이 상생형 일자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기업 주도의 상생형 일자리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생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3.6%(매우 필요하다 22.1%, 필요하다 61.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상생형 일자리 취업의향은 대기업 주도가 91.2%로 나타났고 중소기업 주도는 36.1%, 원·하청 주도는 50.9%로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소속 하청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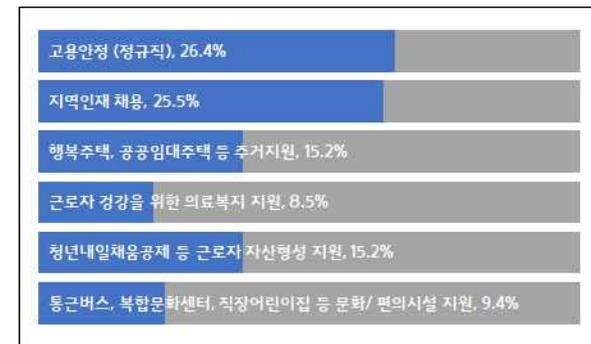
[그림 16] 상생형 일자리 필요성 및 취업 의향

- 대기업 주도 상생형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임급의 80%가 적합하다는 응답률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 상생형 일자리 임금수준은 중소기업 임금보다 120~130%가 적합하다는 응답률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중소기업 주도 상생형 일자리에 취업한 자에게 별도의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고 지원 수준은 연간 500만 원이 적당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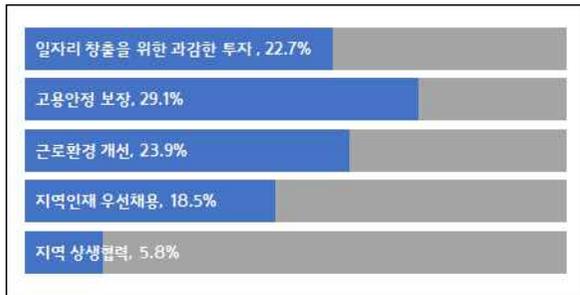
[그림 17] 상생형 일자리 임금수준

- 상생형 일자리를 통한 혜택으로 고용안정은 응답률이 26.4%로 나타났고 지역인재 채용은 25.5%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15.2%), 자산형성 지원(15.2%)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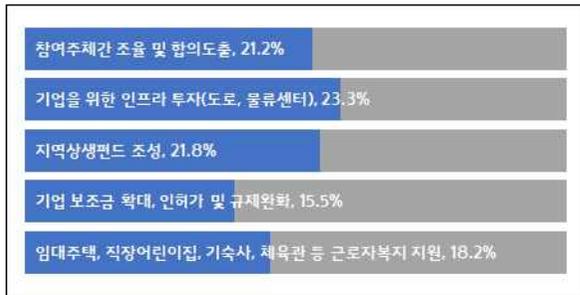


[그림 18] 상생형 일자리에 따른 희망 혜택

- 상생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기업은 고용안정 보장에 힘써야하고 충청남도는 기업을 위한 인프라를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됨
 - 기업이 상생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로는 고용안정 보장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투자(22.7%), 근로환경 개선(23.9%)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됨
 - 상생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충남도가 해야 할 일로는 기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 외에도 참여주체간 조율 및 협의 도출(21.2%), 지역상생펀드 조성(21.8%)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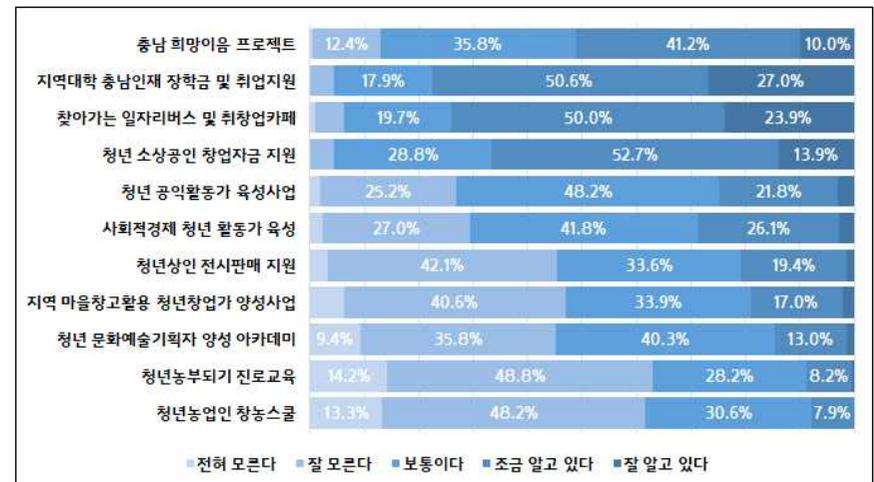
[그림 19] 상생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



[그림 20] 상생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충남도청이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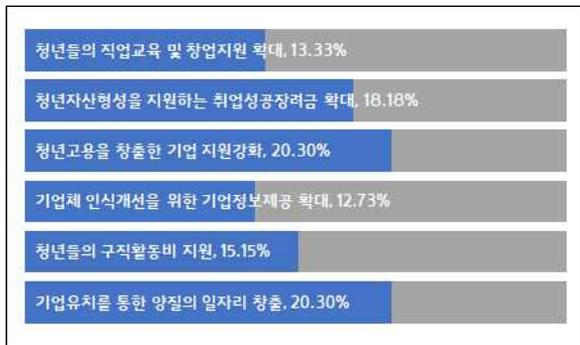
(5) 일자리 정책 평가 및 제안

- 취업준비자에게 취업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인식은 높고 교육 사업에 대한 인식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남
 -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업에 고용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지역대학 충남인재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77.6%로 인식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및 취창업카페 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도 73.9%로 인식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사업(66.7%)과 기업탐방을 지원하는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51.2%)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남.
 - 반면, 교육 사업 중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청년농부되기 진로교육,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와 같은 특정 산업 직업군을 교육하는 과목에 대한 인식도는 낮게 나타남



[그림 21] 충남의 청년일자리 지원 및 창출 사업에 대한 인식

- 충남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됨
 - 충남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청년고용을 창출한 기업 지원강화,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음
 - 기타의견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제공 확대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근로조건 및 급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타남



[그림 22] 충남이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그림 23] 충남의 청년 일자리정책 관련 기타 의견

04 요약 및 결론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구인규모는 줄고 실업은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음
- 향후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 경기불황 등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져 고용시장 전망이 밝지 않음
 -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 청년부채의 증가 등 사회적비용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충남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충남 청년 일자리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충남 노동시장 현황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노동시장 전망은 매우 부정적(나아지지 않을 것 71.5%)이며, 20대 후반과 자연계열 및 예체능계열의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
 - 전공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노력과 전공별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들은 근로조건, 임금 수준, 고용안정 순으로 직업을 선택
 - 임금수준은 그동안 취업의 가장 주요한 변수였으나, 최근 들어 근로조건이 더욱 우선시 되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임금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등 근로환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들은 생산직·기술직이나 서비스·판매직보다는 사무직과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사무직과 공무원 외 남성은 생산직·기술직을 여성은 서비스·판매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제조업 중심 생산직·기술직의 일자리가 많아 서비스업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충남 일자리 문제

- 충남 청년들은 충남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선호도가 높고, 특히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의 수도권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전공미스매칭 해소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도내에서는 천안과 아산의 선호도가 높아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청년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지역에 취업하여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은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짐
- 청년들이 생각하는 충남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점은 불안정고용, 부족한 일자리 수,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로 나타남
- 충남도 산하기관만큼은 즉각적인 인건비 보전을 통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민간의 경우는 인건비 매칭지원을 통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해야함
- 특히 서비스업, 보건업 등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력 필요
- 충남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의향이 높는데, 이에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올바른 매칭서비스가 중요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과 기업의 만남을 위한 사업에 관련 산업분야 전문 매니저를 두어 취업 후 이직하는 청년들을 줄여야 함
-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임금과 청년들의 희망 연봉과는 5백만 원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청년통장,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들의 자산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유인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도내 67.6%의 청년들이 충남내 전공분야 일자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후반, 인문 어학 및 예체능계열 전공자에서 전체 응답률 보다 높게 나타남
- 충남은 제조업중심의 일자리에서 문화·예술 분야 등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확대 노력 필요

■ 청년 자기계발

- 청년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령별·전공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졸업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20대 후반 대졸자 같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필요
- 교육, 예체능계열 등 전공별 선호 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
- 청년들이 취업스펙 쌓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격증 취득 지원과 인턴십 등 직무 관련 경력 및 경험을 쌓을 수 기회 제공을 확대
- 20대 초반은 어학능력 향상, 20대 후반은 직무 관련 경험, 대학 졸업 예정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

■ 충남 상생형 일자리의 필요성

- 충남 청년들의 83.6%가 상생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소기업 컨소시엄 보다는 원·하청 상생, 원·하청 상생 보다는 대기업 주도를 더욱 선호
- 대기업 주도 상생형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현재 임금수준의 80% 정도가 적합하다고 응답
- 다만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필수
-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받고 싶은 혜택으로 고용안정이 26.4%로 나타났고 지역 인재 채용이 25.5%, 주거지원(15.2%), 자산형성 지원(15.2%) 순으로 나타남
- 충남도가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할 때는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지역인재 채용을 노사정 협상의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주거지원,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도 필요

- 상생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기업은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 충남도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을 위한 도로, 물류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상생펀드 조성, 참여주체간 조율 및 협의 도출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
- 조성펀드는 기업투자매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건축·토지 구입비 등에 적절히 활용

■ 일자리 정책 평가 및 제안

- 취업준비자에게 취업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교육 사업에 대한 인식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남
- 청년들은 지원금, 컨설팅 등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등 프로그램은 청년 니즈조사를 통해 선호도를 높여가야 함
-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었음
- 결국 청년 고용정책의 핵심은 교육훈련이나 고용조건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 양질의 일자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관건인데, 충남은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함

< 참고자료 >

- 고용노동부, 2018, 청년고용원정책, 고용노동부
- 송미영, 2016, 충남 외국인 유학생 인권실태조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제3차 일자리위원회 발표자료
- 충청남도, 2018,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충청남도
- 한국개발연구원, 2020,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KDI 보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2020,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20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 황광훈·이은혜, 2020, 고용조사 브리프 2020년 여름호,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lel.go.kr)
-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